

긴급복구 투입가용자원 총동원

익산시, 단시간 대규모 복구·군경병력 연일 1000여명... 일상복귀 총력

익산시가 주말 전까지 긴급 복구 '골든타임' 사수에 사활을 걸고 민관 군경 가용자원 지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에 집중한다.

주말인 22일부터 비가 예고돼 2차 피해를 막는 '응급 복구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단시간 내 대규모 복구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19일부터 연일 1천여명의 군인과 경찰인력 투입에 힘입어 피해지역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금강지류로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산복천 일대인 망성·용안·용동면 하우스, 축사, 주택 등 총6497동에 대해 기름 및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를 복원하며 주말 이전 일상복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곳에는 35사단, 108여단, 7공수, 11공수 군병력 1천여명이 투입됐다.



3대대와 경찰가동대 360여명은 황등·남산·용안·금마·성당면 등에서 침수된 축사, 하우스, 주택 등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19일 1천여명의 군인과 경찰인력은 침수 피해가 큰 망성, 용안, 용동면 현장에 투입돼 축사, 하우스, 주택 등에 유입된 토사 및 진흙, 기름유출 제거 등 수해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은 지역 전역에 투입돼 복구작업을 실시 중이다.

한편 제방 붕괴 위험이 있는 산복천 구간에 긴급보수가 완료됐다. 산복천은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지역인 대청댐 방류와 금강 지류천이 합류된 상황에서 서해바다의 만조로 금강이 원활히 배수되지 않자 수위가 급상승되며 제방사면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다.

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철야작업 등으로 굴삭기, 포클레인, 덤프 등 수습여대를 동원해 파쇄석 2,500t, 돌방대 50EA, 토크 등을 실어 나르며 산복천 임시 보수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비가 그친 사이에 서물러 농작물 병해충과 수해전염병 등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제 문화재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침수피해 문화재 복구 '총력'

익산시, 백제무덤 입점리고분·미륵사지 등 긴급보수예산 필요

익산시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제 문화재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피해복구를 위해 문화재 보수업체 등과 협업체를 확충하고, 우장막 설치 등 임시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긴급 보수예산 신청에 나섰다.

익산지역에 평균 455mm(최고 합라면 595.5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리며 미륵사지, 입점리고분 등에서 10여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 14일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심곡사 진입로 구간에 범람 토사가 유실되고 나무들이 쓰러지자 즉각 굴삭기 장비 투입해 통행로를 확보하고 우장막을 설치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같은 날 금강변인 응포면에 위치한 입점리고분은 인근 합라면 최고 595.5mm의 폭우가 내리며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백제시대 무덤인 고분 주변의 토사 유실 뿐만 아니라 탐방로 배수로 석축 일부가 붕괴됐다.

시는 우장막과 흙마대를 설치해 토사유실 방지조치를 완료하고 고분 토사 유실과 배수로 석축 재구축 등 긴급 보수 대책을 강구했다.

왕궁리유적은 배수가능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집중호우가 내려 서측공장 일부구간이 침수되었으나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 사전정비로 서측공장의 배수를 원활히 해결했다.

이 밖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망성면 내바위성당 문화재구역 내 수목 전도, 합라면 김평순 고택 주변 담장토사 유실, 국가등록문화재 등에서도 경미한 피해상황이 접수돼 복구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시는 미륵사지 문화재구역인 심곡사 진입로와 입점리고분 등 복구가 시급한 대규모 피해구간에는 문화재청 긴급보수 예산 신청을 준비중이다. 현재 소요비용 산출 등으로 2차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조속히 복구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반려해변 제도 통해 해양환경 개선 추진

기업·단체 등 민간 참여 유도... 해양쓰레기 인식 전환 기대

군산시가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기업·단체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반려해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반려해변 제도는 특정해변을 민간(기업, 단체, 학교 등)이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변인양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기본 참여기간 2년 동안 반려해변에서 연 3회 이상 정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HD현대인프라코어(선

유1구 옥돌해변), 6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선유9구 옥돌해변)에 반려해변을 등록 및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반려해변에 대한 정화활동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정화활동은 기업과 단체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이 직접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을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기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수거사업과 연계한 민간의 주도적 활동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반려해변 제도 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및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방안들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 주도적인 참여와 시민 인식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반려해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 야외부서 자매도시 김천시 농산물 교류판매행사

군산시가 자매결연도시인 김천시와 20일 군산종합경기장 야외부서에서 김천에서 자란 포도·자두·복숭아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천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군산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알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제철 과일인 포도·자두·복숭아를 군산시민들에게 좋은 품질로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가진 이번 행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현장 판매 없이 사전 주문 물량만 배부하는 등 행사를

축소 진행했다.

시는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7일까지 사전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자매도시 김천시와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사전 신청접수 물량이 2487박스 44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이를 현장에서 배부했다.

교류행사 직거래장을 방문한 채유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천 자두와 포도가 자매도시간의 끈끈한 정을 돈독히 하는 하나의 연결체라고 보고, 앞

으로도 지속적인 행사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산시민의 환경같은 김천 포도와 자두 사랑에 김천시를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양 자매도시가 더욱더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매년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 판매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양 도시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안전 강화

익산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산물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해 방사능 수거검사 및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추진 중이다.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수산물 취급 영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347개소 실시했고,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를 28건 완료했다.

이번 점검 중점내용은 음식점 의무

표시 대상 품목 20가지(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원산지 표시 여부, 수산물 취급 영업소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와 일본산 중국산, 국내산 다소비 수산물인 생선, 갈치, 고등어, 낙지, 오징어 등에 대한 방사능(요오드, 세슘) 검사이다.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시정 및 지도가 20개소이며 지도업소에 대해 재점검 결과 모두 적합했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28건 중 20건 적합이며 8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대규모 축제 대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익산시가 '사이 흙백쇼,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등 대규모 축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현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장을 포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인 '사이 흙백쇼 SUMMER SWAG 2023'의 재해대처계획과 1일부터 개최되는 '2023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는 공연장과 축제장 위생과 예방대책, 안전관리 요원 배치계획,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검토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2차 외부슈퍼비전 회의 개최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0일 고난도 사례 해결방안 모색과 사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2차 외부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 내 전문가인 시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최이화 부센터장, 군산시 이동보호전문기관 강민숙 기관장, 군산 부부가족상담연구소 김완순 소장,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이나영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외부 슈퍼비전 회의는 미리 공유된 고난도 사례의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모색,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방법 도출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 이동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외부 슈퍼비전 회의를 통해 고난도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고난도 사례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